

마데라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천국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수치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도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천국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복음의
세계 속에 하나로 녹아들어
항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머물기를
힘씁니다.

세상의 소식을 들으며

신윤식

살다, 살다, 또 다른 세상으로
꽃 지듯 가는 길
싫다 싫다하여 가지 않을 수 없는
올 때의 순서 없이 누구나 가는 길

아름다운 곳이라 말하는 이세상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또 다른 세상을 염두에 둔 간이역인가

그의 모습 생생히 눈에 걸려 있는데
칭찬벽력 믿기지 않는 사실은
빗줄기 따라 들리어온다.

빗물은 슬픔을 가져다놓고
여기저기 애통을 퍼뜨려 놓은 채
다시금 새하얀 구름을 덮어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깔깔 거리니
살아있는 자들의 그리움은 통곡이 되고
통곡은 말문을 막아 병어리가 된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사는 듯 교만할 수 없으니
하루는 언제나 마지막을 안고 있던가.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눈감으면 그만이니
어찌 세상을 전부로 삼을 수 있으랴
세상의 아픈 소식을 들으며
다시금 영원의 세상을 생각해 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7.31

발행호수 제19권 31호

마 24장은 전체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1,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킨

것은 당시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건축되고 있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3:38)**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킨 것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정말로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들 역시 백성들과 함께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가는 성전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겼을 것입니다. 성전의 든든함은 곧 이스라엘의 든든함으로 여겼고 반대로 성전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정말로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가를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중을 아신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절)**고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제자들이 가리킨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참된 성전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교회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일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집이라 우기는 어리석은 행보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를 묻고 **“주**

주일오전설교

마 24:1-14

징조

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성전의 무너짐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세상의 끝, 즉 종말의 때로 여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관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무겁고 힘든 현실에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징조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특이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징조의 현상들이 보인다고 해도 세상 끝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사건 사고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 끝은 아예 무시한 채 자기 인생을 위해 매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의식에 세상 끝의 문제는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라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한 것은 현실 문제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끝을 보기보다는 현실을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세상 끝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부들 역시 세상 끝의 문제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할지가 더 신경 쓰이고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은 해야 할 일로 골치가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반면에 말한 대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부각되는 세상 끝의 문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현실의 삶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1992년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되었던 **“다미선교회** 같은 사건도 있습니다. 세상 끝과 예수님의 오심에 광신적으로 빠져들어서 종말이 이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모두가 헛된 것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삶은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자신들의 휴거에만 매달린 채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종교적 집회만을 일삼으며 그 날을 기다

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끝이라는 문제를 현실의 삶과 대비하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지나칠 수가 없으며 또한 현실의 삶을 팽개쳐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로서 세상 끝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24장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셨고, 왜 무너져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이스라엘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 된 종교의 세계는 무너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교체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중에 신앙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성전은 무너져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종말은 이러한 무너짐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작정 세상에 끌려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있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내게 있고 내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거절하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할만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생의 문제를 두고 본다면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이 복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필히 옛 세계, 즉 보이는 것이 복이 되는 세계는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세계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는 신자가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종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 끝을 아는 신자라면 최고의 가치성을 주님께만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세상 끝의 징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세상 끝의 징조는 제자들 당시에도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 역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기근과 지진 등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구에 내렸던 폭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과 서초구는 부자들이 산다는 동네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단 몇 시간의 빗줄기로 인해서 이수리장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단지 자연재해로 여기지만 신자의 눈에는 세상은 무너질 곳이며 그 어느 곳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징조로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예수님께 두면서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만이 참된 복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미 세상의 끝에서 있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굳게 서 있는 기존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대신 참된 복의 세계를 굳게 세우는 작업을 벌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은 단순히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해체와 파괴라는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만이 남는 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인생을 살아다가 죽으면 천국가면 되고, 혹 살아있을 때 종말이 이르면 그때 구원 받으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성실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종말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짐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기존의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 있는 것

으로 세워지는 작업을 진정한 종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들의 생명과 안식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도 생명과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모두가 지나가는 것들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아쨌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도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의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한 징조들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확인되는 것은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의 징조를 보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세상만을 보면 예수님의 존귀함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보다는 돈으로 사는 기존의 세계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 앞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일 뿐임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지나가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힘을 막지를 못합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까지도 지나가게 하는 힘에 밀려서 함께 지나가고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징조들을 보면서 그 같은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는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만 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고 헛되게 보이는 일기기에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구원은 이러한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교회의 비밀

(교회2강 7.10일 설교)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이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평생토록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나오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한 부딪힘과 경쟁과 시기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과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의 욕망의 산물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욕망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과 시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욕망에 묻혀 살아가는 더러운 실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을 자신이 아닌 더러움을 씻으시고 덮어주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께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덮어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함께 지어가는 관계에 있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거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훈과 자비가 증거물로 맺어져야 하는 현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참으로 결끄러운 관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신자는 여전히 율법을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는 습성이 있었고, 이방인 신자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신자들의 신앙을 경멸하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서로 일치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서로 일치되는 것이야 말로 사도가 생각하는 복음의 정신이었고 사도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생각하는 일치는 인간의 공통점을 찾아 그 공통점 안에서 서로 통하는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즉 같은 고향 사람이라든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인맥과 공통점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치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치는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 모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것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여러분께 교회는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조직이 있고 예배 의식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교회입니까?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형제에 대한 존귀함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함께 교회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대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위치와 소유를 기준으로 해서 무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부딪힘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도 교회도 아니라 내 사상이고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터뜨리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 됨을 말하고 일치를 말하면서 유대교 신자와 이방인 신자 모두를 비밀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물음을 세상 안에서 답한다면 학생이고 주부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대리고 과장이고 교사고 교수고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로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존귀하다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게 입혀진 은혜 또한 존귀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존귀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존귀하지 않다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관계이며,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결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가 모퉁잇돌이 되어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모퉁잇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로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무시하며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 만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 됨은 잃어버리고 항상 다툼의 관계에만 머물렀던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라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비밀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가까운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네 믿음은 네 믿음이라는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나와 너의 별개의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판단과 비판만 앞세울 뿐이지 약한 형제를 도우면서 함께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안의 관계, 즉 교회에서는 나 한 사람의 잘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함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로 증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잘함으로 내 이름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고 형제가 왜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오직 나에게만 몰두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만 모아 놓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로 모아 놓으셔서 모이면 부딪힘과 다툼과 경쟁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딪힘을 통해서 나오는 악함과 더러움을 보게 하시면서 용서와 긍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을 아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을 알고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신다면, 그런 여러분이 함께 하는 현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사랑이며 용서고 긍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한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부름 받았습시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입니다.

우 리 눈에 펼쳐지는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큰 함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자라는 인식에 살 아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수요일설교
말 2:10-17

어떻게 괴롭혀
드렸나이까
(4장 7.6일 설교)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평안과 부를 누리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같은 현실이 계속 될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게 되면서 믿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십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이 곧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가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속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속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복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을 받았으니 나머지 작은 것은 사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합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가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척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생각에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힌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은 떳떳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보다는 믿지 않은 악인들을 더 돌봐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실종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자신들이 언제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는지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함이니라” 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신다는 말, 악인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 그리고 세상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들이 하나님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스라엘이 그들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잘되어야 할 만큼 나은 사람들입니까? 10

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관계에 있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관계를 무시하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관계에 있고 아버지라는 관계 안에서 그들을 모두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제가 해를 입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이방인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방인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복을 얻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과 동일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의 괴로움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여겼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단에 나오되 자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왔습니다. 즉 죄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 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눈물과 울음과 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받지도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마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의 모든 제물을 돌아보지도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을 주지 않고 악인이 잘살고 자신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이방인보다 더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15절에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고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오직 하나만을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과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만을 만드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아내로부터 마음이 나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나뉘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다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혼을 하고 아내를 학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떳떳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이스라엘다음에서 멀어지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신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종교적 실천과 행함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천과 행함이 있을수록 떳떳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뭐니까 할 만큼은 했습니다’ 는 식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며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함정이 되어 여러분을 불만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받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현실이 어떻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장 복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0장
 교 독 : 15(시27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95장
 성 경 : 마 24:1-10
 말 씀 : 징조(14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39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53장
 기 도 : 김옥자 집사
 찬 송 : 421장
 성 경 : 롬 14:17-18
 말 씀 : 교회와 하나님 나라(교회 5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2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 교회소식 ■

- 5-7일까지 문경에서 은석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예배는 수련회 장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수련회 참석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윤식 목사는 1-4일까지 총회청년수련회 관계로 부여로 출타합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신자로 사는 인생 ②

독일 사람으로 미국에 망명한 신학자인 폴 탈리히는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죽음도 죄도 아니고 무의미성이라는 말을 했다. 고대인들이 인간의 유한성 곧 죽음의 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두었고, 중세인들이 죄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다면 현대인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정신적 문제라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대가 생각하는 인생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좋은 직장을 가져서 사회에서의 자기 거취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또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다.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솔직히 자기 인생에 대해 돌아볼 심적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생계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오직 직장에 충성하는 인생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남자나 여자 모두 인생의 의미의 위기를 맞는다고 흔히들 얘기한다. 남자들은 지금까지 힘들여 추구해 오던 것들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미래의 삶에 별다른 전망이 내다 보이지 않을 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인생에 대한 답답함과 지루함 무의함을 느끼게 된다. 흔히 남편 또는 아버지가 돈 버는 기계로 전락되었다는 세상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자기 존재성에 대한 무의미성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실직을 했다든지 일찍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사실 직장 생활하는 40대 중반의 거의 모든 남자들은 퇴직이라는 위기의식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들에게 퇴직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가족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퇴직이 곧 세상에서의 도태로 느껴지면서 자신의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은 위기감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인생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지 않고 인생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헤어날 수 없는 큰 자괴감에 빠지기 십상일 수밖에 없다.

여자들은 예외는 아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부터 자기만의 인생은 사라지고 남편 뒷바라지와 함께 자식을 돌보고 교육을 위해 정신 없이 살아오다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여 엄마의 손길이 점점 줄어들게 될 때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을 정도로 허무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몸은 예전과 같지 않고 아이들도 컸다고 엄마와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편도 직장 생활에 바빠 아내에게 관심이 없을 때 인생의 의미를 심각하게 되물게 되는 것이다.

남편도 이 같은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얘기할 상대는 이미 아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위기감 속에서 허덕이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고민은 한가하고 팔자 좋은 사치스런 고민으로 일축하기 십상이다. 자기 인생도 무겁기에 아내의 고민에 귀 기울여 줄 여유가 없는 것이다.